

사고당 150억원, 전기차 화재 피해자는 어디에 청구하나

차주가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며 주차·충전 중 주변 재산손해를 먼저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시행 발표와 현재 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포털·약관 안내를 대조해 가입 주체, 청구 경로, 보상 대상과 제외 항목을 최신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8.22	연번	2026_52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 보험을 전기차 차주의 책임보험이나 모든 화재손해의 최종 보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핵심은 책임주체가 확정되기 전 주변 재산피해를 먼저 지원하는 데 있다. 대상차량·주차 또는 충전·피해재산이라는 세 조건과 면책을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한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참여 제작사·수입사가 가입하고 대상차량 피해자가 전용 포털에서 청구합니다. 사고당 150억원·연간 450억원 한도지만 최초 화재차량 자체와 신체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됐고 현재 전용 포털에서 대상차량 조회와 보험금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시행	2026년 7월 1일	정책보험
계약자	참여 제작사·수입사	차주 별도 가입·보험료 없음
대상 사고	주차·충전 중 화재·폭발	약관 요건 충족
보상한도	사고당 150억원	연간 450억원
차량 연령	신규등록 후 10년 이내	참여사가 국내 판매한 등록차
청구	evsafety.kr · 1644-7613	본인인증→사고검색→청구

피보험자는 대상 전기차 화재로 재산손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포털은 책임주체가 확정되기 전에도 청구를 받아 지급 보험금을 결정한 뒤 7일 이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직접손해 외에도 잔존물 제거, 소방·피난손해와 손해방지비용 등이 약관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최초 화재가 난 전기차 자체, 사람의 사망·부상, 현금·유가증권과 일부 재고자산 등은 주요 제외 항목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대형 지하주차장 화재는 발화차량의 자동차보험 한도와 책임확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정부와 참여사가 보험료를 분담해 주변 재산피해의 초기 자금 공백을 줄이도록 설계됐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차주가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제작사·수입사입니다. 따라서 같은 전기차라도 참여사 판매차량인지, 사고일 기준 신규등록 후 10년 이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위험은 운행 중 충돌사고 전반이 아니라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폭발입니다. 외부충격·침수·정비 중 화재 등 약관의 면책사유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른 자동차보험·화재보험·제조물책임과 보장 범위가 겹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선지급은 최종 책임과 다른 보험의 부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손해조사와 대위·정산을 거치는 구조입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옆 차량 소유자, 건물·설비 소유자와 생활용품 피해자 등입니다. 건물관리업체·충전시설관리자와 제작·수입사는 포털이 제시한 피보험자 제외 항목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별도 보험과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당 한도 150억원은 피해자 한 명마다 150억원이 아닙니다. 한 사고에 여러 피해가 생기면 약관상 인정손해가 사고당 한도 안에서 처리됩니다. 연간 총한도 450억원도 전체 계약의 연간 지급 한도입니다.

사고당 한도	150억원	피해자별 한도 아님
연간 총한도	450억원	사고당 한도의 3배
지급 안내	결정 후 7일 이내	포털 안내 기준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다수 피해 배분

한 사고의 인정손해가 150억원을 넘을 때 피해자별 배분과 선후순위는 약관·보상기준과 손해조사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02 · 다른 보험과 정산

자동차·화재·재산보험과 겹치는 손해의 실제 지급 순서와 구상 결과는 사고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 참여사 변동

보험대상은 참여 제작사·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므로 사고일의 참여사와 차종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 신체손해 공백

사망·부상 등 신체손해는 이 보험의 대상이 아니어서 자동차보험·배상책임과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사고 직후 화재·소방 기록, 피해사진·영상, 차량과 재산 소유·수리 견적을 보존하고 전용 포털에서 대상사고를 검색합니다. • 보험 대상 차량인지 조회한 뒤 evsafety.kr의 청구 절차를 이용하고 어려우면 전담 콜센터 1644-7613에 문의합니다. • 최초 화재차량 자체·신체손해·일부 재산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기 자동차·화재보험에도 같은 날 사고를 알립니다.
대상회사	• 참여 제작사·수입사와 보험사는 차대번호 조회, 면책, 다수 피해 배분과 다른 보험 정산 순서를 청구 첫 화면에 표시합니다. • 접수일·손해결정일·지급일과 미지급 사유를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확인하게 합니다.
당국	• 참여차량·사고·청구·지급·거절 통계를 같은 기준으로 공개하고 사고당 한도 초과 사례의 배분원칙을 안내합니다. • 신체손해와 관리업체·충전시설관리자 제외로 남는 공백을 자동차·재난보험 제도와 함께 점검합니다.

칼럼길

선지급이 실제 피해 복구 속도를 줄이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시행 뒤 접수부터 손해결정·지급까지 걸린 기간과 다수 피해 사고의 배분 결과는 아직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A 전용창구가 복구를 앞당김 대상차량 조회와 손해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책임확정 전 수리·복구 자금의 공백이 줄어듭니다.	B 대상·면책 확인이 병목 참여차량, 발화상태와 제외재산 다툼이 길어지면 별도 보험과의 중복조정까지 청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어디를 보면 아는가 · 전용 포털의 사고·청구 현황과 지급기간, 거절사유·한도초과 배분 통계가 공개되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금융사건 물류창고 화재보험 공백](#) ↗

[금융사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제도와 규칙 금융분쟁조정제도](#) ↗

[금융상품 자동차보험\(개인용\)](#)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6건

01	1차 · 2026년 7월 1일 시행, 사고당 150억원·연간 450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6월 30일 공식 발표 원문 열기 ↗
02	1차 · 참여 제작사·수입사가 계약자이며 대상차량은 별도 가입·보험료 없음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공식 FAQ 원문 열기 ↗
03	1차 · 대상차량은 참여사가 판매한 국내 등록차로 사고일 기준 신규등록 10년 이내 공식 보상범위 안내 원문 열기 ↗
04	1차 · 책임주체 확정 전 청구 가능, 지급보험금 결정 뒤 7일 이내 지급 안내 공식 보상범위 안내 원문 열기 ↗
05	1차 · 최초 화재차량 자체·신체손해·일부 재산과 사고유형은 주요 보상 제외 공식 보상범위·면책 요약 원문 열기 ↗
06	1차 · 본인인증·사고검색·온라인 청구와 전담콜센터 1644-7613 운영 공식 보험금 청구 페이지 원문 열기 ↗

추적 예정	전용 포털의 실제 접수·지급기간, 거절사유, 사고당 한도 초과와 다른 보험 정산 사례가 공개되는지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PDF 작성 뒤 개통된 전용 포털을 반영했습니다. 청구창구·전화번호·지급 안내와 주요 보상·제외 항목을 공식 포털 기준으로 갱신하고, '기존 보험이 먼저'라는 일률 표현은 사고별 중복조정으로 정정했습니다. 사이트 공개 순서를 다시 대조해 연번을 제52호로 바로잡았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은 사고일의 대상차량 목록, 보험약관·보상기준과 손해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